

創 刊 辭

우리 고려대학교내에 中國學研究會가 創立된 것은 1981年 6月이었다. 당시 우리학교에서 中國學 및 이에 관련된 分野에서 종사하고 있던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中國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研究方法를 모색하고 많은 意見을 나누었는데 이것이 中國學研究會의 創立으로 발전하였고 내가 초대會長職을 맡아보게 되었다.

이제 中國學研究會가 創立된지 얼마 안되었으나 學術誌를 發刊하고 이를 중심으로 中國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研究를 할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다.

사실상 지난날의 中國을 돌이켜보면 中國은 東아시아에서 文化的 先進國이었고 정치 군사적 大國이었으며 인류文化發展에 대한 비상한 功獻으로 世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中國을 살펴보면 中國의 領土는 楊子江 黃河 淮河의 長江大河를 포함하는 中國本部의 18省을 중심으로 東은 滿州평원 北은 몽고高原과 알타이산맥 西는 파밀고원, 南西는 히말야산맥 그리고 東南으로는 東지나해와 南지나해를 경계로 구성되었는데 그 面積은 약 959만km²이다. 中國의 이 面積은 아시아대륙의 1/5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볼 때 소련 캐나다에 이어 제 3位의 大陸國家를 형성하고 있다.

中國人口는 오늘날 10億을 넘고 있다 그 種族構成을 보면 고대 中國文化의 暢達者였던 漢族을 포함해서 몽고族, 서장族, 越族, 퉁그스族의 五大種族을 중심으로 350여族이 융합되어 현재의 中國民族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같은 中國民族의 복합성과 다양성은 그 類例를 세계빛스에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中國文化는 세계四大文明 發祥地의 하나인 黃河文明에서 그 起

源을 찾아볼 수 있는게 그 時代는 기원전 4000년 경에 융성했던 仰韶文化 時期였다. 이미 이 時期부터 農耕을 기반으로 形成되었던 中國文化는 殷, 周의 국가형성과 더불어 독자적 靑銅器 제작 文字發明 禮敎文化를 暢達하고 또 學術과 思想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중앙집권적 官僚制度를 支配根幹으로 한 秦漢帝國이 形成되자 그 정치 군사적 統一과 安定속에 융합되어 中國古典文化를 完成하게 되었다.

이렇게 완성된 中國古典文化는 現實을 긍정하되 克己를 강요한 儒家思想, 無爲自然을 주장한 道家思想, 인도에서 수입된 사상으로 現實世界 이전의 自我에로 歸依할 것을 호소한 佛敎思想을 그 정신적 사상적 기반으로 독특하게 발전하였고 또 주변의 무수한 遊牧民族과 그 文化를 흡수 동화하여 中國 고유의 傳統文化를 形成하였다. 그리고 이 中國傳統文化는 東아시아 諸民族의 國家形成과 文化發展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그 결과로 오늘날 東아시아 文化圈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中國은 世界文化發展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것은 종이 인쇄 화약 나침반의 發明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中國의 傳統文化는 현재 인류文化의 基調를 이루고 있는 科學·技術文明을 體系的으로 發展을 못시켰으나 이를 發明品이 현재 人類文化 發展의 四大要素였음을 감안하면 世界文化 發展에 中國文化의 지대한 功獻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아득한 黃河文化에서 生成한 中國文化는 東아시아 文化의 源流였고 中心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諸民族文化의 母胎였다. 그리고 現人類文化 形成과 發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近世에 이르러 中國은 西歐 및 日本 資本主義列強의 가장 중요한 植民地의 對象이 되어 政治 經濟 軍事的 수탈과 착취 그리고 침략을 받아왔다. 그리고 현재에는 공산당의 治下에 들어가 後進國으로 轉落되었다. 물론 이 기간중에 中國에서 中國復興과 近代化에 대한 적극적 인 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清末에 康有爲에 의한 變法自強의 改

革운등이 있었고 이 改革운동이 실패하자 孫文은 革命 운동을 전개하여 滿淸政府를 타도하고 中華民國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中國이 다시 軍閥에 의한 內紛과 混沌에 빠지자 蔣介石은 中國統一과 近代化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毛澤東은 中國을 政治 軍事的으로 統一은 이룩하였으나 中國近代化는 실패하였다. 그 결과로 中國은 共產國家이면서도 근래에는 經濟的 親西方政策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中國의 이와 같은 中國復興운동과 近代化를 위시한 歷史的 試行過程과 現實은 中國傳統社會가 一進一退의 극히 緩慢한 그러면서도 加速的인 흐름속에서 近代化를 추진하고 中國復興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인가는 이룩될 中國의 近代化 그리고 中國復興을 가상해 볼때에 中國의 광대한 領土 방대한 人口 유구하고 찬란한 中國傳統文化 그리고 中國民族의 비상한 創造力은 인류文化發展과 世界史形成에 다시 한번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海陸으로 中國과 밀접해있고 역사적으로 볼 때 1500여년 이상 中國의 諸王朝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깊은 關係를 맺어왔다. 이에 따라서 中國의 先進文化는 우리의 國家形成 經濟發展 文化創造에 직접 간접의 많은 영향과 자극을 주었으며 오늘날 우리의 傳統文化 形成에도 中國文化의 一部가 그 토대로 되어 있다. 이같은 사실은 우리의 傳統文化 研究와 解明을 위해서도 中國文化의 研究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中國과의 地政的 位置를 볼 때 中國은 남쪽의 日本과 더불어 우리의 이웃으로서 영원히 계속될 宿命的 關係에 있는데 이같은 사실은 우리의 未來를 위해서도 中國研究가 필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우리 세대에 있어서 中國에 대한 깊은 關心과 체계적 研究는 어느 시대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30여명에 가까운 中國관계의 學者들이 모여있고 東洋學 관계의 방대한 藏書를 갖추고 또 韓國學의 本山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대학교가 그 중심이 되어 中國研

究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中國學論叢의 創刊을 필두로 우리 학교에서 長足の 中國研究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總長 金 俊 燁